

중국, 2005년 농업 및 정책동향

리 경 호*

2005년도 중국의 농업생산은 식량을 비롯하여 채소, 과일, 육류 등이 증가하였고, 유지작물은 정체하였으나, 면화는 대폭 감소하였다. 농산물무역은 대두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결과로 2004년부터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2년 연속 순수입국이 되었다. 그리고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부문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농가부담 경감과 직접지불 확대 등으로 농업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05년도 중국의 농업동향을 소개한다.

1. 농업생산 동향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식량(중국의 식량 개념은 곡물 외에 두류, 서류를 포함)생산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 기대 가능한 채소, 유지작물, 과수 등의 생산을 증가하는 농업생산구조조정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2000~02년의 식량생산량(서류의 5kg을 식량의 1kg로 환산)은 직전 4년간(1996~99)보다 약 5,000만 톤 적은 4억 5,000~6,000만 톤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3년의 식량생산량은 2,000만 톤 이상 더 감산하여 4억 3,070만 톤 생산되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식량 감산이 4년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1996~1999년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inghulee@krei.re.kr 02-3299-4374

비축한 방대한 정부 재고가 있었고, 주식인 쌀과 밀의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의 영향으로 2003년 3분기까지는 가격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년 10월부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이러한 시장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식량생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우대정책으로 인해 식량재배면적은 6년 만에 증가하였다. 더욱이 좋은 기후의 혜택도 있어 식량생산량은 전년보다 3,878만 톤(9.0%) 많은 4억 6,947만 톤에 이르렀다. 2005년의 식량생산도 전년과 유사한 환경으로 인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66만ha(2.6%) 증가한 1억 427만ha에 이르렀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1,454만 톤(3.1%) 증가한 4억 8,401만 톤에 이르렀다.

기타 농산물의 2005년의 생산은, 면화 생산은 대폭으로 감소하였고 유지작물과 당료작물은 전년과 대등한 상태(사탕무는 대폭 증산), 채소와 과일의 생산은 비교적 큰 증가를 가져왔다. 육류와 수산물의 생산은 변함없이 대폭적인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중 유지작물, 채소, 과일, 육류 및 수산물의 생산량은 역사기록을 갱신하였다(표 1).

표 1 주요 농산물의 생산 동향(2005년)

단위: 만 ha, 만 톤, %

	재배 면적		생산 량	
		증감률		증감률
식량	10,427	2.6	48,401	3.1
유지 작물	1,431	-0.8	3,078	0.4
땅콩	n.a.	n.a.	1,434	0.0
유채씨	n.a.	n.a.	1,305	-1.0
면화	506	-11.1	570	-9.8
사탕	156	-0.5	9,551	-0.2
채소	1,774	1.0	56,284	2.2
과일	n.a.	n.a.	16,076	4.8
육류			7,700	6.3

주 : 과일 생산량은 수박, 멜론, 딸기를 포함
 자료 : 「2005年國民經濟社會發展統計公報」

2. 농산물무역 동향

2005년의 곡물무역은, 옥수수 수출의 회복, 소맥 수입의 감소에 의해 2년 만에 수출량이 수입량을 웃도는 순수출국으로 되었다. 하지만 대두는 전년 수입량을 636만 톤(31.4%)을 웃도는 량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식물유 및 사료용 콩깻묵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주요 농산물의 무역 동향

단위: 만 톤

		수출		수입	
		2004	2005	2004	2005
곡물		480	1,018	975	627
	쌀	91	69	77	52
	소맥	109	61	726	354
	옥수수	232	864	0	0
	보리	0	0	171	218
대두		35	41	2,023	2,659
식용 식물유		7	23	676	621
설탕		9	36	121	139
면화		1	1	198	265
채소		602	680	11	10
과일		313	365	106	115

자료: 중국농업부 홈페이지

그 외에 면화의 수입이 전년에 이어 증가하였고 채소와 과일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표 2).

2005년의 농산물(수산물을 포함)의 총 수출액은 275.8억 달러(전년 대비 17.9% 증가)이고, 총수입액은 287.1억 달러(전년 대비 2.4% 증가)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11.4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2004년은 46.4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금액으로 볼 때 무역적자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2

년 연속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FAO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의 대두, 소맥, 대두유, 야자유의 수입량은 각각 세계 1위, 보리와 유채유의 수입량은 각각 세계 2위로서, 곡물이나 유지작물, 식물유 등의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모두 주역 위치의 수입 플레이어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농산물 가격 동향

2003년 가을부터 2004년 상반기에 걸쳐 급격히 상승한 곡물의 가격은 2005년에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2004년에 전년 대비 28.1%의 상승 폭을 나타낸 곡물 생산자가격은 2005년에는 전년 대비 0.8% 하락하였다. 또한 곡물가격의 안정에 따라 농산물 전체의 생산자가격의 상승률도 2004년의 13.1%에서 2005년의 1.4%로 대폭 하락하였다. 2005년 생산자가격 상승이 비교적 큰 주요 농산물은 채소, 과일 외에, 면화가 11.8%, 당료작물이 11.6%, 찻잎이 10.2% 상승하였다(표 3).

표 3 농산물 생산자 가격지수

단위: 전년=100

	종합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2002	99.7	95.8	95.1	109.9	100.2
2003	104.4	102.3	110.4	102.0	101.8
2004	113.1	128.1	105.2	98.6	111.1
2005	101.4	99.2	107.2	107.4	100.5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4년의 3.9%에서 2005년의 1.8%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식료품가격의 안정이 큰 기여를 하였다. 즉, 2004년의 식료품가격지수의 상승률은 9.9%(그 중 식량은 26.4%)였는데 2005년에는 2.9%(그 중 식량은 1.4%)로 대폭 하락하였다.

4. 농가소득 동향

2005년의 농가소득은 전년에 이어 대폭 상승하였다. 2005년의 농가의 1인당 소득(세금차감후의 순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19위안이 많은 3,255위안으로 증가하였는데 명목 증가율은 10.9%, 물가상승을 공제한 실질증가율이라 해도 6.2%로서 전년과 비슷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1인당 소득 동향

단위: 만 ha, 만 톤, %

	농촌 가정		도시	가정		격차
		증감			증감	
1997	2,090	+164	5,160	+321	2.47	
1998	2,162	+72	5,425	+265	2.51	
1999	2,210	+48	5,854	+429	2.65	
2000	2,253	+43	6,280	+426	2.79	
2001	2,366	+113	6,860	+580	2.90	
2002	2,476	+110	7,703	+843	3.11	
2003	2,622	+146	8,472	+769	3.23	
2004	2,936	+314	9,422	+950	3.21	
2005	2,255	+319	10,493	+1,071	3.22	

주: 격차는 농가 1인당 소득을 1로 할 때 도시가정 1인당 소득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5; 「2005年國民經濟社會發展統計公報」

도시가정의 1인당 소득이 전년에 비하여 1,071위안 증가하였기 때문에 도시가정과 농가의 소득격차는 3.22배로 적지만 조금 확대되었다. 2004~05년은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높았고 풍작이어서 농가에 있어서 조건이 좋은 두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정과 농가의 소득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과제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표 4).

5. 최근 농업정책의 특징

중국의 농업정책은 최근에 큰 변혁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농업정책체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제적인 틀에서는 ‘세계화 속의 농업보호’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국내적인 틀에서는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는 미국형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서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경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로 각 분야에서 우승열패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하였는데 WTO체제는 세계화의 진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 시스템인 것이다.

사람이 많고 토지가 적은 중국의 농업은 채소나 축산 등 노동집약적 부문은 어찌되었든 간에 곡물이나 유지작물 등 토지이용형의 부문에서는 토지가 풍부한 신대륙의 농업이 결코 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제한과 1990년대 중반까지 실시한 곡물 등의 가격지지정책으로 국내농업을 보호하여 왔지만 WTO 가입에 따라 국내 농산물시장을 개방(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율의 인하)해야 하고 가격지지 등 WTO의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의 실시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안전보장이나 농촌의 고용확보 관점으로는 농산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국내 농업의 쇠퇴라는 시나리오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개방화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04년부터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농촌 진흥책(소위 허용대상정책)의 확충에 힘을 신게 되었다.

중국 국내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발전에 동반하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이후 한 시기에 곡물가격지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가정과의 소득격차 축소를 실현하였지만 WTO 가입이 확실시된 1999년에는 이러한 정책과 결별하였다. 그 후 2003~04년부터 농민부담의 경감과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6. 2004~05년 농업정책 동향

2004년 이후 중공중앙의 1호문건은 3년 연속 농업정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후진타오·원자보우 정권이 농업·농촌·농민 문제(3농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사실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3년간의 농업정책은 그 연속성이 매우 강한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2002년의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정식화된 “많이 주고 적게 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한다(多予, 少取, 放活)”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게 취하다’는 농민부담의 경감을 가리킨다. 2004년에는 먼저 흑룡강성, 길림성 2개 성에서 농업세를 폐지, 2005년에는 하북성, 산둥성, 운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에서 농업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에 1958년에 설치한 ‘농업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국의 농업세(농지에 부여하는 세금)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에 병행하여 2004년에는 잎담배를 제외한 농업특산세를 폐지, 2005년에는 목업세(축산업에 부여하는 세금)를 폐지하였다. 2006년의 1호문건에서는 이 세 가지의 조치를 ‘세 가지 감면’으로 부르고 있다.

‘많이 주다’는 ‘3농’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증액을 의미하는데, 그 내역은 농

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과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로 나뉜다.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의 중심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① 곡물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② 곡물우량품종재배에 대한 보조금, ③ 대형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등 ‘세 가지 보조금’이다.

곡물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의 구체적인 지불방법은 각 성에 따라 다른데 곡물 생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고 농가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보상으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정책이 농가의 영농의욕을 높인다는 것은 틀림없다. 전국 8억 농민 중 6억여 농민이 이 정책의 대상이다.

곡물우량품종재배의 대상 품목은 2002년에는 대두 하나였지만 2003년에는 양질 소맥이 추가되었고 2004년부터는 수도 및 전용품종인 옥수수도 포함시켰다. 2005년의 전체 대상면적은 4,000만무(전체 경지면적의 1/3) 정도에 달하였다. 또한 대형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실시하는 현은 566개 현(전국 현급 행정구역의 1/5)에 달하였다(人民日報 2006년 1월 7일).

2005년 중앙재정이 ‘세 가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보다 29억 위안이 많은 174억 위안이었다. 빈곤지역이나 순 농촌 지역의 말단 행정기관(향, 진정부 및 촌민위원회)은 농업세 이외의 수입이 거의 없다. 때문에 농업세의 감면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출한 지방 교부금은 전년보다 140억 위안이 많은 664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 외에 2005년에 농촌의 인프라 투자나 농업기술 보급, 농촌사회사업 등을 위하여 중앙재정 및 국채건설자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전년보다 329억 위안 많은 2955억 위안에 달하였다(農民日報 2006년 2월 27일). 3농문제에 대한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참고자료

池上彰英, “農業”, 中國研究所「中國年鑑2006」 創土社(2006), pp.151~154 원역